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겔 립

좋은 인맥

내가 73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발점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로 인해서다. 그들이 나를 광고했고, 그 광고는 다시 그 옆 사람으로 확산되면서 마침내 남미를 비롯,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소식은 각 나라의 대통령과 주지사, 시장 등은 물론 재력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이 복음 전파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었다.

내 옆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광고대행업체다. 그들로 인해 점차 인맥이 형성되고, 그들로 인해 내 삶의 환경이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가까이 있는 그의 12제자로부터 인맥을 형성하셨고, 그들로 인해 광고가 되어 70인의 제자, 다시 3천명의 제자... 마침내 그분의 소식을 들은 온 인류가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인맥으로 하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신다.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이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에게 다 적용된다. 우리 지교회의 어느 목사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목사들은 품만 잡는데 저 분은 다르다.'고 광고했고, 그 광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 그 목사는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다.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SK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기업이었겠는가. 국내에서의 호평이 해외로까지 이어진 결과다. 요셉이 국무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 방에 있던 술관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인맥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휴먼네트워크, 인맥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리를 지킬 때, 위급할 때 도움을 주고, 끝까지 믿어줄 때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단단한 인맥을 형성한다. 우리는 지금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도와 물질로 돕고 있다. 이것은 분명 단단한 인맥을 형성할 것이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기틀이 될 것이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어선 안 된다. 공동체도 계속 관리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잘 대접하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우크라이나를 살립시다!

"오늘이 나를 보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티셔츠 차림으로 서방세계를 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마지막 펜트가 우크라이나의 현 상태를 웅변해주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몇 방이면 모두 도망갈 것이라 여기고 단기전으로 끝내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부녀자까지 뿔뿔 뿔쳐 러시아 군대에 온 몸으로 항전하고 있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공의 부당성과 그 폭력성을 연일 질타하면서도 3차 대전의

프 등지에 우리 지교회가 설립되어 나날이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에 다녀간 현지 목회자들도 다수입니다. 영상을 보며 낮익은 얼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리아 목사가 있는 하리코프는 초토화 지경이고, 흑해 연안의 남부도시들도 아비규환 상태이며, 비탈리 목사가 있는 수도 키예프 역시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우리 땅끝예수전도단 회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협하던 앗수르왕 산헤립의 군대를 멸절시키신 것처럼(사37:36),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것입니다. 나는 슬라바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휴전이 성립되면 즉시 들어가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을 재건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현지 목사들에게 전해라.' 말뿐이 아니라 나는 휴전만 이루어지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키예프, 하리코프, 오



우려에 참전을 꺼린다. 그 사이 러시아 군대의 잔혹한 공격은 계속 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 주일예배 연속으로 우크라이나 집회 영상을 보여주시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할 것과 교회 재건을 위한 후원을 독려하고 계신다. "나는 지난 2000년부터 약 15년 동안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하리코프, 키예프, 니콜라예프, 심페로폴, 오데사, 자파로시, 멜리토폴, 루츠크, 코벨, 폴타바, 수미, 키로보그라드 등 13개 도시를 17회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약 300개 교회가 우리의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슬라바 목사의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를 비롯하여 장코이, 니콜라예

상황에서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매일 슬라바 목사로부터 현지소식을 보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舊)소련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음 드네프로에 가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고통당했고, 숙소에서 가스에 질식되어 죽을 뻔했으며, 폭탄물 위협을 당하지 않나, 경찰들이 숙소로 들이닥칠 않나, KGB에 끌려가고, 종교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정말 피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애절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살립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데사 등지의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교회 재건 현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좌로 송금해도 되고, 직접 현금하셔도 됩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교회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있습니다.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는 드네프로의 최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죽음과 맞서 싸우며 절박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면 안 됩니다. 적극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우크라이나 교회재건을 후원하며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잠17:17).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37:14~38)



불가항력일 때 비장의 무기, 기도가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불가항력(不可抗力), 곧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러시아의 요구대로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No! 절대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 항복하면 평생 노예로 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결사항쟁(決死抗爭)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 되던 해, 앗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산헤립은 평화유지 조건으로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라는 막대한 양의 공물을 요구했고, 이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곳곳을 털고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벗겨 앗수르에게 바쳤습니다(왕하18:13~16). 그러나 남의 나라를 멋대로 침공하는 놈이 그런 약속인들 지키겠습니까. 산헤립은 퇴각하는 척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도성의 항복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독촉하기 위하여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진영에서도 역시 3명의 사절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앗수르의 왕의 사신인 랍사게는 항복할 것을 요구했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가까지 하리라”(사36:16~17). 그리고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까지 능욕합니다. 협상단에게 모든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지금의 상황이 불가항력의 상황,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같도다”(사37:3)라고 알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도 산헤립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펴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사 산헤립의 군대 185,000이 하룻밤 새에 전멸했고, 도망친 산헤립은 그의 두 아들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사37:35~38).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눅18:27).

불가항력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길은 항복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성령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다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울부짖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그분은 귀가 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역전의 드라마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마를 연출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와 사면초가의 상황일 때 뭘 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단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과 같은 싸움입니다. 절대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기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어찌 다윗을 돕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강권했고,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세

를 역전시켜 모르드개 대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게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부림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힘든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니 안심하고,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는 이에게 열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24절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겠습니까(롬8:31)?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감히 누가 덤비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홍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46:1~3).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힘이 없으면 침략을 받게 되어 있

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많은 침략을 받았고, 36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교회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그러합니다. 높고 돈 없으니까 자식들도 잘 안 찾아온다고. 그럼요, 내가 없으면 자식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돈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찌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弱肉強食)은 동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나 인간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법칙은 적용됩니다. 없으면 무시당하고, 없으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없으면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나라를 지킬 힘, 곧 자주국방력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도 얕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권 안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아람(我覽),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자꾸 무시를 당하는 것은, 내가 자꾸 귀신이 틈타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기르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충만하면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돌아보고 빈 것을 부지런히 채워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단합하여 골리앗 같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후원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잠17:17). 진정한 우정은 위급한 때에 알아볼 수 있는 법,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들이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전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웁시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우리도 세계 각국의 기도와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으니 이제는 돌려줍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대면예배로 모두 나오세요

코로나로 여러 분야에서 위축된 곳이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꾸준히 확장해나가는 곳도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축되거나 쪼그라드는 생각을 하며 축소 지향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확장 지향적으로 가면 그것도 그렇게 해주신다. 복음은 확장성을 스스로 갖고 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율법이 지키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지향적인 사고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좀 덜 나오니 대형버스를 25인승 작은 버스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면 그다음은 12인승 승합차로 바꾸게 된다. 기도처도 작은 기도처로 옮기려 하면 그다음은 지하 웅색한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6절에 보면 불의 사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아가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하고 도 이세벨의 협박에 움츠러들어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호렘산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어도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게 하라’ 하시고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도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어찌할 수 없으시다. 우리 인 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열 지파 두령들이 메뚜기 사상을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려 하자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여주셨고,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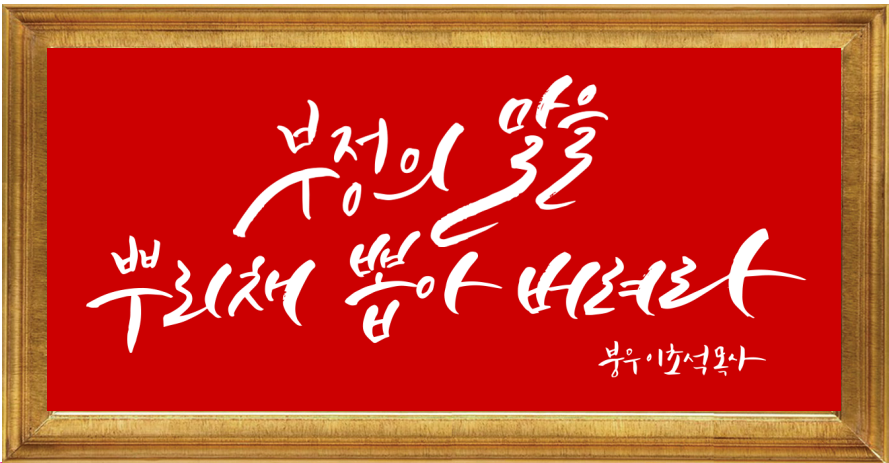
80이 넘는 두 노인이 60세 이하의 장정들 속에 끼어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진군한다. 우리나라 교회가 6만여 개 된다는데, 이번 코로나로 1만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단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 대비 20% 정도의 성도들이 아직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도 끝낼 조짐이 보인다. 지금이 회복할 기회다. 여차하면 시간을 놓치고 20% 줄어든 교회가 정성인 줄 착각하고 고착화되어 버린다. 지금이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이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고 원상복귀하고,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힘이 없어 못하거나 지는 것이 아니다. 머뭇거리다 지는 것이다. 때를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성공자들은 때를 아는 지혜와 때에 맞게 행동하는 실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종들이 매일 금식하며 금년 전반부에 코로나 이전 원상 복귀를 위해 입에 칼을 문 심정으로 기도하며 뛰고 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땀시다. 함께 재해 복구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거뜬히 이를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갖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상과 싸우며 오셨듯이 코로나도 싸우며 이기며 함께 가야 합니다. 대면예배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류장은 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순종이 믿음이다

찰스 피니는 19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대(大)부흥사였다. 그런데 피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사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깊은 밤민 속에서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던 피니는 32,500가지의 약속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우리 목사님 또한 그것을 아셨기에 ‘나의 믿음은 오직 예뿐이었다.’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기적을 동반한 믿음을 증거하시며 21세기를 이끌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지 말자.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귀신 쫓으려면 귀신 쫓고, 믿으려면 믿고, 충성하라면 충성하자. 성경은 ‘그리하면’의 법칙이다.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마6:33),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계2:10),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눅6:38)... 복의 근원이라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함 없이 말씀을 좇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이삭 또한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나 되었다고 증거하지 않는가? 2022년 응답과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기도의 씨름

어느 날 밤, 몹시 지쳐 곧바로 쉬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씨름하듯 기도를 마치고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나를 바닥에 던지듯 밀쳤다. 그때 나는 팔을 뻗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외쳤고, 그들은 더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온몸과 마음 모두가 평안하고 힘을 얻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약 전 날 밤 ‘피곤하니 쉬자.’ 했더라면 맞볼 수 없었을 승리였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든 상황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 때가 있다. ‘피곤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환경이 이렇게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보이는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에 우리 목사님은 “첫 사랑을 회복하라, 기도의 불을 켜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되찾아라!”고 지금도 날마다 외치신다. 왜냐하면 기도의 끈을 늦추는 순간, 우리는 악한 것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밀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되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육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빼앗겼던 것까지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힘써 천사와 씨름하고서 마침내 형 에서와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 주 되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애쓰고 힘쓰는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얻으셨음을 볼 때, 이 땅에서 영육 간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애쓰는 필사각오의 기도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군인은 작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다.” 2011년 아테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선원 전원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출해낸 장병 가운데 한 대원의 짧은 발언이 인상 깊은 것은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꺾박과 순교가 온다’는 우리 목사의 목회철학과 닮아서다. 보이는 육의 전쟁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 목사님을 본받아,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씨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유종(有終)의 미(美)

삼일절이 지났다. 103년 전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과 그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던 조선의 무수한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민족대표였던 33인을 만세를 부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라를 위해 살다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중 3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한 삶이라 할 수 있겠다. ‘무정’이라는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을 쓴 작가 이광수도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열정의 학자였지만, 결국 친일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만다. 2022년은 나에게 중요한 한 해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루고 보류하던 박사학위 논문을 탈고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보류는 없다. 결단코 나는 올해 학위논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래서 학위논문에 전념하려고 노력 중이다. 문득 문득 게으름과 학업의 부족함으로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그럴 때마다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본다. 생각해 보면, 처음은 근사했지만, 끝이 좋

지 않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이 있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있다. 성경 속 이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서 처음의 다짐이 끝까지 달라지지 않기를 매일 다독이고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본다.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인해서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에 머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땀나뭇 위에 올라가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나의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나의 끝은 주님의 은혜로 심히 창대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본다. 아니,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전훈지 집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신앙의 성(城)을 사수하자!

고대 전투에서 ‘성(城)’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성을 구축한 나라와 그 성을 함락코자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곧 전투의 역사이기에, 좋은 성은 역사학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자들이 극찬하는 성, 천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기록을 남긴 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이 성이 끊임없는 침략을 받으면서도 천 년 동안 자리를 지킨 비결, 역사학자들의 칭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성의 규모가 크거나 만리장성처럼 길이가 길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지혜를 모아 성벽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성 앞에 해자(壕字), 즉 큰 도랑을 만들어 성벽을 향해 달려오는 적병들의 옷이 젖어 행동을 둔화시키고, 성벽을 3층으로 쌓아 더 많은 병사들이 층층이 서서 적들을 향해 활을 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벽 일부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치성(雉城)을 만들어 벽을 기어오르는 적들의 등에 활을 쏘

는 등, 전쟁을 위한 지혜와 공을 많이 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함락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대군의 적병도, 신무기를 가진 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심!’ 어떤 군대가 와도 함락되지 않았기에 군인들은 점점 자만심에 빠졌고, 성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성문 지키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문지기를 맡겼지요. 어느 날, 적군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성벽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성문을 열기 위해 돌진했을 때 사명이 없는 용병들은 의지도, 전의도 없었기에 쉽게 제압당하고, 결국 성문이 열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성(城)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우리 삶을 강하고 튼튼하게 정비할 수 있고, 어느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태도, 즉 기도와 말씀, 예배와 같은 신앙의 필수조건들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수성(守城)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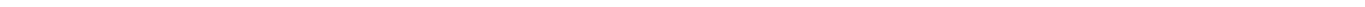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얻고, 사용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 이방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 왕국이 무너져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아시아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널리 알려질 만큼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으며, 주를 위해 기꺼이 순교의 마음까지 가졌던 데마가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할 인생의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결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의 길은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삶을 지혜로 건축해가고, 기본에 충실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하인명 집사



협력하라

노을 지는 저녁 하늘에 기러기가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야말로 장관이다. 그런데 기러기는 절대 홀로 나는 법이 없다. 한 줄로 나란히 떼를 지어 날거나 정교한 V자의 형태로 난다.

그렇게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무리를 지어 날면 홀로 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

려주어 힘이 덜 들게 하고, 그 기러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뒤따라오는 기러기를 올려주어 혼자 날 때보다 71% 힘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즉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지혜로 공생하는 거다.

수학에서 1+1은 2이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협력하면 2가 아니라 22도 될 수 있고, 100이상의 부가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협력은 놀라운 상승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정체가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면 서로 좋다. 협력해서 나쁠 게 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이 겪는 모든 난국을 넉넉히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계도 서로 협력하면 얼마든지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격을 담

합해서 소비자를 힘들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경쟁도 좋지만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력은 씨실과 날실과 같아서 이것이 잘 연결되면 바람이 새지 않고 질기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분쟁은 자폭하는 길이고, 공멸의 길이나 협력은 상생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어수선한 요즘에 꼭 다시 되새기고 싶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뇌졸중, 알아야 할 5가지

50대 초반의 김 씨는 낮부터 무언가 자신의 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입이 둔해지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진 것 같았다. 서둘러 응급실로 향한 김 씨, 검사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초기로 응급치료가 이루어졌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합하여 이르는 병명이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를 잘 알도록 하자.

1. 어지럼증

어지럼증은 뇌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거나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나타나는데, 이는 뇌의 위치가 갑자

기 변하면서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어지럼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한다.

2.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

뇌졸중은 여러 위험인자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먹는 피임약 등의 위험인자를 평소예에 예방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3.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회복된 신체마비는 따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일과성으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발음장애, 연하곤란, 비틀거림, 시야장애, 의식장애, 복시 등이 있었다가 회복되었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와 치료를 받아 뇌졸중을 예방해야 한다.

4. 치매와는 무관한 병이다?

‘시상’이라는 뇌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 뇌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나타날 경우,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혈관성 치매라 한다.

5. 침으로 다스려야 한다?

뇌졸중은 응급상황이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침을 맞는다며 시간을 허비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3).

Dr. 조희경 집사
pearl0203@naver.com

기도로 친구를 돕자!

몇 해 전, 해외에서 한 친구가 예수중심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2011년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도 참석했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했다. 그의 영어 이름은 ‘데이빗’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자가 되겠다며 한국식으로 ‘겸손’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짧은 시간 겸손이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MT도 같이 가고 많은 추억을 쌓았다. 겸손이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아간 후에도 서로 인스타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근 전쟁이 발발하면서 겸손이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괜찮은지 연락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DM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며 눈물을 보이며 내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지난 주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영상을 보여주셨다. 그 영상에서 겸손이는 예루살렘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겸손이를 보니 지금 처한 현실에 마음이 더 쓰였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영국 리버풀의 세인트 조지 홀, 독일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등 각국의 랜드마크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추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서울 시청, 남산타워, 부산 광안대교까지 전국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의 빛’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세계가 기도하게 하셨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라 삼결혼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예수중심교인들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충분한 힘이 있다.

송현혜

